

전 가 동 향

중기 원-스톱지원 확대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사용이 손쉬워진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정책자금 One-Step지원제도의 대상 자금을 정통부의 정보통신 기술개발자금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 관련자금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책자금을 사용키 위한 관련서류를 간소화하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온라인 진단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신보의 한관계자는 이같은 정책자금 One-Step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높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책자금이 지원됨으로써 최근 벤처기업의 부도와 비리 등으로 위축된 국내 벤처시장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One-Step지원제도는 정책자금의 신청 단계에서 사전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심사를 실시하여, 자금지원 대상기업 선정과 보증을 동시에 결정함으로써 대출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술신보 홈페이지(www.kibo.co.kr)나 기술신보 해당 기술평가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위험 적은 신축공장 내화구조 적용 완화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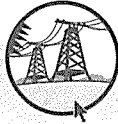
앞으로 공장건축물 중 화재위험이 적은 업종에 대해서는 내화구조 적용이 완화된다.

또 소규모 공장증축에 대한 사전 환경성 평가제도가 개선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 바닥면적 2,000㎡ 이상인 공장은 화재에 대비하여 주요구조부에 대해서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부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불연성제품으로 구성되어 화재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화구조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에 비용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재위험이 적은 업종에 대해 내화구조적용의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전 가 동 향

그러나 전기배선장치등 가연성 재료가 포함된 제조업은 내화구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공장주변의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사업자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용이하게 작성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운영중인 공장의 인접부지에 동일한 사업자가 공장확장 또는 신규 설립을 하려는 경우, 확장 또는 신규 설립하는 사업계획 면적(공장면적)이 소규모

인 경우에도 기존 공장면적과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사전환경성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므로 공장 증축을 할 때마다 사전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전환경성 평가제도는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 사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배전공사 다기능 다선가선공법 한전 운영기준 개정

한전은 배전공사용 다기능 다선가선공법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개정, 각 사업소에 시달렸다.

이번에 개정된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3억원 미만 입찰공사인 경우 전선가선 공장 1km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현장여건이나 전선가선 공사비 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소장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입찰공사에서는 당해공사 전선가선 기계화공법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격심사 시 1점의 가

산점을 부여한다.

한전은 참여업체의 사전준비기간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개정된 세부 운영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산자부로부터 전력신기술로 지정받은 ‘배전공사용 다기능 다선가선공법’을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결과, 배전공사비 절감과 시공품질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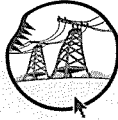
전선업계 ‘기지개 편다’

국내 전선업체들의 광케이블 판매가격 회복과 초고압전력선 사업 호황등 경기회복에 힘입어 매출과 이익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들의 1분기 실적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LG전선의 경우 올1분기 영업실적이 지난해 4/4분기보다 매출액 4341억원(2.2%), 영업이익 260억원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한전선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4/4분기(2775



전 가 동 향

억원)보다 8.8% 증가한 3019억원, 영업이익 183억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에 힘입어 경상이익이 적자에서 155억원의 흑자로 전환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호전됐다.

LG전선의 1분기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실적에는 못미치지만 작년 9월 시작된 미국발 불황의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상승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전선업계는 최근 한전의 투자확대에 따라 초고압부문은 현재 최고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LG

전선의 경우는 납기를 제때 맞추기 힘들 정도로 호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모두 올해 목표매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을 3~4개월 정도의 경기후행적 성격을 띄는 전선업종의 특징을 감안할 때 하반기부터는 여타 업종처럼 화황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변압기 · 전동기 日수출 '청신호'

변압기, 다상교류전동기 등 전기·전자 제품의 일본에 대한 수출 길이 넓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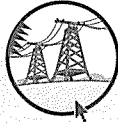
관련업계와 KOTRA에 따르면 전기·전자 부품 수입에 극도로 폐쇄적인 입장을 보여오던 일본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타개기 위해 부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수입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국내기업들의 대일 수출확대방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기업들이 최악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해외아웃소싱을 가속화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기기자재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주로 자국내에서 협력업체들로부터 기초 전기기자재나 부품을 조달해 왔으나 최근들어 품질과 가격만 만족스럽다면 어느 나라 제품이건 상관

없다는 인식으로 구매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본기업들이 수입을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식승인등 일본자체규격을 취득하기 어렵고 최우선적으로 철저한 품질관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선불리 진출할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KOTRA는 일본의 부품시장동향과 시장진출전략 보고서를 통해 대일 수출이 유망한 제품으로 전기전자부품과 변압기, 다상교류 전동기, 반도체 부품 등을 추천하고 일본시장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미국등 서구권 국가와 다른 표준규격을 갖고 있는 일본의 규격을 이해해야 하며 자사의 공급능력에 맞는 업체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 가 동 향

전기기계업 체감경기 살아난다

2·4분기 전기기계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5.1로 전망돼, 1·4분기에 비해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조사·발표한 제조업 BSI 결과에 따르면 전기기계업 종은 1·4분기에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해 전분기 지수 4.7보다 크게 낮은 3.4에 그쳤으나, 2·4분기 중에 5.1수준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 BSI로는 내수가 1·4분기에 3.6에서 2·4분기에 4.9로 상승세를 탈 전망이며, 수출도 4.8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분기별 평가에서는 1·4분기에 전분기 대비 시황(3.7) 매출(3.4) 내수(3.6) 수출(3.8) 등 전반적으로 수급활동이 좋지 않았으며, 2·4분기에는 시황(4.6) 매출(5.1) 내수(4.9) 수출(4.8) 등 모든 부문

에서 수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 전기기계산업 BSI

	2001		2002	
	3/4분기 현황	4/4분기현황 (전망)	1/4분기현황 (전망)	2/4분기 전망
전분기대비 현재시황	-	4.1(-)	3.7(4.1)	4.6
매출액	4.0	4.7(3.9)	3.4(3.1)	5.1
국내시장출하	3.8	4.6(3.7)	3.6(3.2)	4.9
수출	3.8	4.0(4.0)	3.8(3.8)	4.8
재고	4.0	4.4(4.3)	4.0(3.9)	4.8
경상이익	3.7	4.5(3.7)	3.8(3.6)	4.8
설비투자	4.0	4.2(3.8)	3.9(3.9)	4.5
설비가동률	4.1	4.6(3.8)	3.6(3.4)	5.0
고용	4.0	4.1(3.9)	4.0(3.8)	4.4
종업원 평균임금	4.1	-(4.1)	4.4(-)	4.8
원자재가격	4.1	-(4.7)	4.3(-)	4.5
평균지급금리	3.3	-(3.7)	4.2(-)	4.2
자금사정	-	3.9(-)	3.7(3.7)	4.4
제품가격	3.5	3.9(3.4)	3.8(3.8)	3.8

※ 4.0이상 : 전분기 대비 호조, 4.0이하 : 전분기 대비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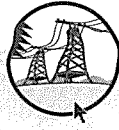
업무자동화·민원 신속처리

한전은 오는 2004년까지 판매관리통합시스템(판매SI시스템)영업분야를 전국 사업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배전분야는 2005년까지 단독 시행한 후 2006년부터는 영업, 배전분야를 통합키로 했다.

한전 판매SI팀은 "배전 지리정보시스템 DB가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이 가능한 영업부문을 2004년에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히고 "배전분야는 2005년까지 단독으로 시행한 후 2006년 영업분야와 통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97년 판매SI 기본계획을 확정된 후 지난해 4월까지 350억원을 투입, 시스템 설계와 개



전 가 동 향

발작업을 수행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지사에서 판매 SI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한전 판매 SI시스템의 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지사단위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은 물론 민원접수를 전담해 처리할 수 있다”며 “특히 민원업무를 신속·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고, 업무전반을 자동화함으로써 판매분야에 경영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업무처리는 콜센터에

서 직접 처리하게 되며, 민원처리 현황도 고객이 인터넷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요금 청구 및 수납도 기존 25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와함께 배전설계가 자동화되고 배전설비 관리에 GIS 신기술을 활용, 데이터를 누적해 관리함으로써 종합적인 설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전은 이 시스템을 GIS DB가 구축되는 지사부터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고객센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업분야를 먼저 확대하기로 했다.

장마철 누전차단기 작동확인 필수

산업안전공단이 여름 장마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대책 요령을 발표했다.

산업안전관리공단이 발표한 안전관리대책은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옹벽, 석축 등의 붕괴예방 조치, 장비 및 자재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의 안전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안전관리 대책요령은 우기에 대비한 임시 수전설비 위치의 적합성 여부, 이동형 전기기구 상태, 임시 분전반의 설치 상태, 이동전선 및 가설 배선 상태 등의 감전재해 안전조치에 대해 강조

하고 있다.

또 시설물의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상태, 외함 접지 상태, 활선 작업시 작업자의 절연용 방호구 설치 유무, 가공선로 접촉·접근시 안전조치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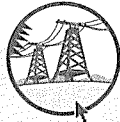
안전공단 관계자는 “사업장 스스로 장마철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장마철 안전검사표를 배포해 검사항목과 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사고위험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고마크 지원범위 확대

한전의 고마크기지원범위가 절전용량 6kW에서 4kW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고효율조명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고마크기에 대한 지원금은 최근 제품에 대한 시장단가가 하락한 것을 반영, 다소 낮춰진다.

1일 한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한전



전 가 동 향

의 고마크제품을 절전용량 기준으로 6kW이상 설치하는 수용가에게 장려금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고마크기지지원범위를 4kW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고효율조명기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국가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전반적인 조명기기의 가격이 하락됐다고 판단, 지원금은 다소 적어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조명기기에 대한 가격 하락은 원가가 낮아졌기때문이 아니라 업체간 과열경쟁에 의한 것이므로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고마크 기기제조업체들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지원범위가 절전용량 4kW까지 확대되므로 영업범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전 구매 전선류 2천71억 추정

올해 한전이 구매할 전선류 단가계약 물량은 총 2천71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저장품목은 나경동선을 비롯한 알루미늄선, 600V비닐절연전선 등 26개 품목에 1천100억원 규모가 구매계약 될 전망이다.

저장품목 중에는 전선조합원 44개업체가 935억원 상당을 계약체결하고, 나머지 나경동선(가공)등 76억원 규모(8개품목)를 재향군인회와 단가계약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와 함께 공사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 구매하는 비저장품목은 알루미늄선, 특고압수밀형가공케이블, 저압CV케이블을 비롯한 33개 품목에 총 1천

61억원 규모가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구매계약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선류 단가계약은 그러나 정부가 당초 정부투자기관의 조기예산집행방침에 따라 상반기중에 60% 이상 계약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으나, 2/4분기 현재 10%정도의 발주실적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업계 및 관련단체는 이와 관련, 한전측이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2단계사업추진과 월드컵 안전관리등 다급한 현안문제로 구매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하고, 월드컵이 끝나는 3/4분기부터 구매계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